



전문 인력으로서 국민의 건강한 삶, 소속 기관의 경영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하고 국가 보건의료서비스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그 직무에 맞는 면허 명칭과 교육과정 정비가 필요하다. 고자 한다. 기

기존의 의무기록사가 갖추고 있는 능력에 더해 새로운 정보기술을 함양하여 갖춘 전문인력으로 전문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제 맞추어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5월26일 의료가사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올해 안에 개정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 할 예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오는 9월까지 보건 의료정보관리사의 핵심 역량에 대한 교재 및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1단계 개발을 완료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사이버대학의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불인정이 확정됐다. 판결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달라

=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의무기록사는 의료기관에서 질병 및 수술분류, 진료기록의 분석, 진료통계, 암등록, 전사 등 각종 의무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관리·확장·인함으로써 의무기록이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직업인이다.'라고 명시됐다.

또한 “전자의무기록시대에 그 전문성과 기술이 더욱 필요함으로 실습 및 실기 수업을 통해 업무 숙련성을 연마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번 판결은 의무기록사가 고도의 윤리성과 전문성, 업무숙련성, 변화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인간 관리 능력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아야 함을 헌법 기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인정해 준 것이다. 즉,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하에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오프라인 중심의 대학에서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가에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의무기록사의 고유업무인 질병분류 및 의무기록 관리 업무 등은 의무기록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해준 것이다.

-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의무기록협회의 대응 전략은.

= 완전하고 정확한 의료데이터 관리를 해야 한다. 빅데이터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빅데이터의 완전성과 정확성이 보장 되어야 하는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Data Audit Tool 등을 개발하고 보급할 계획이다. 이미 퇴원요약 환자에 대한 Data Audit Tool은 개발되었고 보급을 준비중이다.

구글사의 인공지능 오픈소프트웨어인 tensorflow를 이용한 의료데이터에 대한 인공지능 분석에 관한 책자를 대한의무기록협회가 부산대병원의 최병관 교수팀과 공동으로 발간했는데 6월에 출판되면 이를 이용해 회원들에게 교육을 하고자 한다. 이 책은 데이터 분석결과에 근거해 의료서비스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데이터를 유기적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이터 거버번스와 그리고 데이터 윤리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나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하다. 이에 의무기록협회가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여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의료정보 질관리를 위한 의무기록사 채용에 대한 수가 반영을 노력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배경과 추진계획은

